



경외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

시편 128:1-6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신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세상은 복을 물질적 풍요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쉬레’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은 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는 풍성함과 기쁨을, 감람나무는 강인함과 오래됨을 상징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 가정이 풍성하게 자라며,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세대를 넘어 복을 누립니다. 시편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은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영상
(나경식담임목사)



감사(손경민)

2025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한영교회**

2025 추석 가정예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감 사(손경민 곡)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 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합니다

기도 ----- 다 같이
인도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같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이 시간 저희 가정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자) 올 한해의 시간 시간 돌아보니 모든 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같이) 주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님, 저희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같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 시편 128:1-6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나눔 ----- 경외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 (뒷면 참조)

찬 송 ----- 예수 사랑하심을(찬 563장)

보통으로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 네 아멘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을 되세요